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박 영 신[†] 김 의 철 박 영 균

인하대학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차에 대한 지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3,114명으로서, 청소년 1,038명, 아버지 1,038명, 어머니 1,038명이었다.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삶의 질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의 도구를 번역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추가되었을 때, 삶의 질에 대한 설명변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LISREL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은 세대갈등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세대갈등은 삶의 질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자기효능감은 세대갈등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갈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세대갈등보다 자기효능감이 현저하게 높았다. 효과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이나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부적인 효과계수를 보이는데 비해,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매우 높은 정적인 효과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차 지각이나 세대갈등이 클수록 삶의 질이 감소되지만,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면, 세대차 지각이나 세대갈등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대해 3~9배의 강력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대차 지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은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삶의 질, 세대갈등, 세대차 지각

* 본 논문은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2006)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yspark@inha.ac.kr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인간의 삶에서 갈등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 내적인 심리갈등에서부터 인간관계 맥락에서의 갈등, 조직 집단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구성원들의 효능적 신념과 기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심리학회지에서 ‘갈등’을 핵심 주제로 다룬 논문들은 산업 및 조직, 임상, 상담 및 심리치료, 건강, 발달, 여성, 사회 및 성격, 사회문제 등 다양한 하위 전공분야에서 100여 편이 훨씬 넘는다. 심리적 갈등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심리적 역동을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갈등이라는 주제는 중요하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조직에 차이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갈등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더욱 필요로 한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게다가 점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이들을 바라보는 남한 국민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와 갈등적 요소가 있다. 또한 최근에 결혼이주여성들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문화적 뿌리를 지닌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정과 이들에 대해 가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각은 차이와 갈등의 소지를 갖는다. 나아가서 미래

한국 사회가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화합을 위해, 차이와 갈등에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나 갈등이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자기와 타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인은 유전적 소양과 적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 독특한 경험을 누적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의미체계 및 세상을 조망하는 틀 그리고 행동양식을 형성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양한 차이를 지니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 공유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합의된 생활양식을 가질 때, 그 공통분모만큼 문화적 공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들만이 아니라 집단 조직 간에도 현상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조망체제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갈등은 스트레스나 불행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십인십색이라는 말이 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도 동일하게 생긴 사람은 없다. 그런데 차이가 외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의 모습도 그러하다. 이렇게 차이가 생래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면,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졌을 때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리적 매개변인은 없는지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이 세상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갈등하며 고통을 받지만, 차이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의 질에 큰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이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리적 갈등 상태를 감소시켜 주관적 안녕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지, 갈등상황에서도 어떻게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지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기제의 한 단면을 밝히고자 한다.

만약 지각된 차이와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후속하는 삶의 질 맥락 속에서, 효능적 신념과 기술이 의미있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차이 지각과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팽배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에게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ndura(1997)는 효능적 신념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누적적으로 증명하여 왔다.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능감 있는 통제능력 여부에 따라 면역체계의 기능이 달라지고(Bandura, 1991),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강한 효능감에 의해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체계가 증진(Wiedefeld, O'Leary, Bandura, Brown, Levine & Raska, 1990)되었다. Bandura(2006a)는 개인의 효능감 신념이 자기의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 및 변화를 위한 핵심적 자원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차이, 갈등,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삶의 질을 감소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여러 영역에서 밝혀져 왔다.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의 안녕감 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이정미와 이양희(2007)가 부부갈등을 빈도와 지속성, 아동의 안녕감을 정서 심리 측면에서 측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아동의 안녕감이 부부갈등에 부적 영향을 받았으며,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확인되었다. 양돈규와 성옥련(1998)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녀가 더욱 우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안녕감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갈등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족기능을 저하시킴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다. 김정란과 이은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 여성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우울증상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부 갈등을 경험하는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 우울함을 의미한다. 민은정, 홍창희와 이민영(2001)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가족 기능에 대해 높은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남편의 문제성 음주로 심화된 부부갈등은 가족의 응집력이나 대처능력 등 가족기능을 저하시켰다.

부부갈등 외에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삶의 질을 감소시킴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유연지, 조현주와 권정혜(2008)의 연구에서 고부 갈등과 용서 갈등은 배우자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며느리나, 장모와 갈등이 있는 사위 모두, 그러한 가족간 갈등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감소되었다.

또한 직장과 가정생활 두 가지 과중한 일을 겸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성인들의 직장 및 가정에서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들이 있다. 허창구, 신강현과 양수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탈진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가정만족에 대해서는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못할 만큼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직장-가정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에서도 탈진하여 직장생활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가정생활 만족도도 낮아졌다. 장재윤과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직장-가정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도 검토되었다. 즉 남자보다 여자들이 직장-가정 갈등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 및 직무관여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재윤(2004)에 의하면, 남자는 직무특성이 조직 애착에 대해 유의한 정적 경로계수를 보이지만, 여자는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 애착에 대해 유의한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남자보다 여자가 직장-가정 갈등으로 인해 조직 몰입도와 이직 의도를 의미하는 조직 애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다. 박혜련, 박민선, 이빠라와 정선아(2009)가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역할갈등은 정서적 소진에 정적 경로계수를, 역할갈등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경로계수를, 직무만족도는 정서적 소진에 부적 경로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교도관들이 역할갈등을 느낄수록 정서적으로 소진되며, 직무에서의 만족도가 낮으며, 낮아진 직무만족도는 정서적 소진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의 갈등이 정서적

소진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킴을 보여준다. 이선희, 김문식과 박수경(2008)은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정서적 조직몰입이 낮아지고, 낮아진 정서적 조직몰입은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가족친화적 경영이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장-가정 갈등의 간접효과는 매우 미미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경영이 조직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직장-가정 갈등의 감소 이외의 다른 심리적 기제를 찾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갈등이 안녕감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기효능적인 통제감에 의해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성천과 탁진국(2010)이 일-가정 갈등과 역할과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간 통제감을 매개변인으로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고, 일-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높은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시간 통제감은 낮추며, 낮아진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를 높임으로서, 시간 통제감이 매개변인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시간 통제감 변인은 ‘업무와 관련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나의 업무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들로 측정되고 있으므로, 일종의 시간관리 효능감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시간 통제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보임으로써, 높은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한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효능적인 신념이 강하면, 비록 일-가정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훨씬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높은 시간 통제감이 일-가정 갈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감소시킴을 밝힌 연구가 있다. Tinker와 Moore(2003)에 의하면, 시간 통제감은 일-가정 갈등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보였고, 신체 및 심리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일-가정 갈등은 신체 및 심리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시간 통제감이 높으면,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가정 갈등이 줄어들어서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시간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통제적 효능신념이 심리적 안녕감에 얼마나 중요한 인과적 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

한혜영과 현명호(2006)의 연구에서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은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낮아 결혼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사이에서 갈등해결 효능감과 부부 조망수용이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결효능감이 결혼만족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효능적 신념에 의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은 여러 대상들에서 확인되었다. 김성천과 탁진국(2010)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Tinker와 Moore(2003)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혜영과 현명호(2006)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

였으므로, 모두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성인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효능적 신념의 중요성은 확인되었다. 임수진, 최승미와 채규만(2008)이 아동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대처효율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었다. 여기에서 대처효율성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만 두시도록 할 수가 없다’와 같은 문항들이었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였을 때의 대처효능감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들이다. 대처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비록 부모가 갈등상황이 심하여도 문제행동을 적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갈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이 의미있는 작용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삶의 질에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매개변인으로서 의미있는 중재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 등 삶의 질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속변인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 사이에서 자기효능감 잠재변인은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의미있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자기효능감은 6개의 측정변인 즉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부모관계효능감을 포함했다.

아동만이 아니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생만이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의 생활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잠재구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은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에서와 동일한 8개의 하위변인을 측정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만족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중속변인을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행복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도 검증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영향을 받고,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중재효과를 나타내었다.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와 Horiuchi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 초, 중,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이 검증되었으며, 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과 Horiuchi(2009)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모형이 한국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검증되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 집단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이 성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도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동시에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효능감은 성인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초 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자기효능감 잠재변인은 관계효능감, 양육어려움극복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 직장인 여성들의 경우에, 다른 변인들(학력, 연령, 월평균수입, 정서적 지원, 자녀성공, 직업성취)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행복을 설명하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의미있는 설명변량은, 직장인 남성이나 전업주부보다 직장인 여성 집단에서 현저하였다.

양적 분석결과만이 아니라 면접에 토대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영신(2005)이 천식 및 비염 환자들을 면접한 결과, 신체 증상과 생리적 기능 외에도 심리적 기능과 인간관계가, 신체 증상으로서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이 회복되는지 아니면 질병이 악화되는지의 순환이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특별히 자기조절효능감, 주위사람도움효능감, 환경통제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그러한 건강악화 또는 회복의 순환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은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하위변인일 것으로 보여진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이상의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8, 2009a, 2009b)들에서 검증되었다. 관계효능감이 중요할 가능성도 많은 연구들에서 시사되었다. Kim과 Park(2006a, 2006b)은 한국사회와 같은 관계문화에서 관계효능감의 중요성을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논의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김의철, 박영신, 2006)에 의하면, 여섯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 중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로 인간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준다. 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2002)이 대학생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였을 때, 행복은 관계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아이의

특성으로 ‘친구가 많은, 가족의 사랑을 받는, 주변사람의 관심을 받는’이 전체 응답의 41.9%를,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가정이 화목한, 원만한 대인관계, 많은 친구, 이성친구 있는, 의지할 사람 있는, 주변인의 신뢰와 관심을 받는 것’이 41.1%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관계적 특성은 행복한 한국 사람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박아청(2002)도 자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기여하는 바가 매우 의미있음을 확인해 주며, 특히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차이 지각으로 인한 심리 갈등의 맥락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한 세대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인에게 부모자녀관계는 인간관계의 원형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박영신, 김의철, 2004)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계에서의 갈등에 비해 부모와 자녀관계에서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한 세대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남순현(2004)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가족내 세대간의 문제와 갈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의 모색을 시도한 바 있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은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비교하여,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와 유호식(2000)은 청소년, 성인 및 노인집단을 비교하여,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토대하

여,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한 갈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심리 변인으로서 얼마나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차 지각으로 인한 심리 갈등이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의 개입에 의해 어떠한 중재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한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은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세대차 지각을 예컨대 교사와 학생의 세대차 지각 등, 여러 관계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 지각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세대차 지각은, 부모집단 경우는 자녀에 대해 느끼는 세대차를, 자

녀집단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세대차 지각을 의미한다. 세대차 지각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 흔히 지각되는 세대차의 영역을 3가지, 즉 학업, 생활, 여가/기호로 하고, 이러한 하위 영역에서의 세대차 지각을 하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이러한 하위 영역 설정은 선행연구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에 토대하였다.

세대갈등은 부모 경우에 자녀와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해 느끼는 갈등을, 자녀 경우에는 부모와의 세대차 지각으로 인해 느끼는 갈등을 의미한다. 세대갈등 변인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에서의 갈등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세대갈등의 문항 구성도 세대차 지각에 대한 동일한 선행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에 기초하였다.

삶의 질의 하위 측정변인은 가정의 화목, 경제적 여유, 개인적 성취, 자기조절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하위개념 설정의 근거는 박영신과 김의철(2006) 연구 결과에 토대하였다.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로 경제적 요인(22.9%),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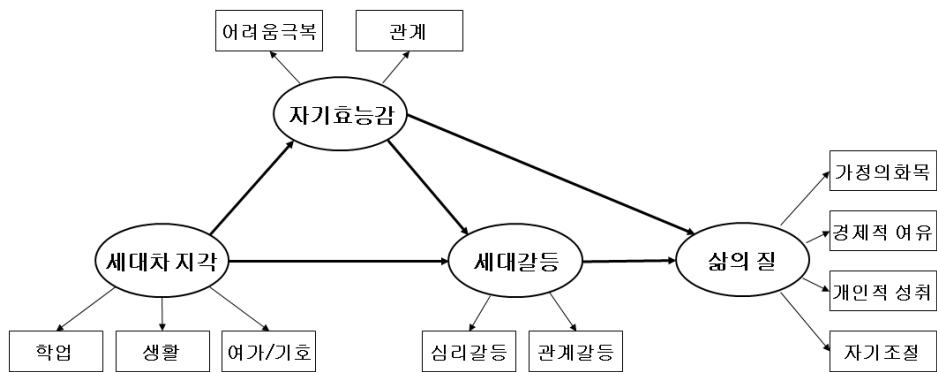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절(22.0%), 여가생활(14.5%), 화목한 가정(13.6%), 원만한 인간관계(8.1%), 건강(7.0%), 학업성취(6.6%), 기타(5.2%)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 중에 부모자녀의 세대차 지각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 변인을 선정하여, 이 연구의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세대차 지각과 삶의 질 사이에 세대갈등 변인이 추가되었다. 세대차에 대한 지각 자체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대차에 대한 지각은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유발된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 연구모형에서의 주된 관심은 자기효능감 변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세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안한 다양한 하위변인들 중에 2개의 하위변인, 즉 어려움 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의 의미있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8; 2009a; 2009b)에서 검토되어 왔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전국 7개 지역(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에서 중 고등학교를 표집하고, 각 학교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표집하였다. 총 3,289명(청소년 1,127명, 부 1,075명, 모 1,087명)의 표집된 자료 중에서 청소년과 부 또는 모가 응답하지 않았다는가, 응답을 빠뜨린 불성실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총 3,114명(청소년 1,038명, 부 1,038명, 모 1,038명)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631명(60.8%)이었고, 고등학생이 391명(37.7%), 무응답이 16명(1.5%)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470명(45.3%), 여자 558명(53.8%), 무응답이 10명(1.0%)이었다. 평균 연령은 14.83세였으며, 연령분포는 12세~9세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5.41세, 연령 분포는 34세~69세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2.49세, 연령 분포는 31세~61세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초등 졸(2.0%), 중 졸(5.1%), 고 졸(39.7%), 대 졸(50.5%), 무응답(2.7%)이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초등 졸(2.1%), 중 졸(6.6%), 고 졸(51.2%), 대 졸(37.3%), 무응답(2.9%)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직(2.1%), 단순노동(2.6%), 숙련직(14.9%), 연예인 운동선수(0.7%), 자영업(28.6%), 사무직(23.4%), 전문직(11.8%), 관리직(8.5%), 고위 전문직(4.0%), 무응답(3.3%)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50.8%), 단순노동(4.9%), 숙련직(8.0%), 연예인 운동선수(0.1%), 자영업(16.7%), 사무직(6.3%), 전문직(8.2%), 관리직(0.8%), 고위 전문직(1.2%), 무응답(3.2%)으로서 전업주부가 반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상(1.1%), 상(11.4%), 중(70.6%), 하(15.1%), 최하(1.8%)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의 측정도구에서 세대차 지각, 세대 갈등, 삶의 질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의 도구를 번역한 것이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 질문지의 일부 변인들을 참고하여, 박영균,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된 질문지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적절한 일부 변인들을 선별한 것이다.

표 1에 변인구성과 Cronbach α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세대차 지각 변인은 3개의 하위변인들, 즉 학업에서의 세대차, 생활에서의 세대차, 여가/기호에서의 세대차로 나뉘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학생용 질문지에서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 느끼는 세대차 지각의 정도를,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 느끼는 세대차 지각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표 1. 변인 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문항 예	신뢰도		
				청 소 년	부 모	년
세대차 지각	학업	6	(청소년용)공부에 방해되는 것(채팅, 핸드폰)을 적게 하라고 강요한다 (부모용)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적게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78	.80	.80
	생활	6	(청소년용)부모님의 요구에 무조건 맞추려고 한다 (부모용)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다	.67	.83	.81
	여가/기호	6	(청소년용)내가 친구들과 즐겨 쓰는 은어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용) 자녀가 친구들과 즐겨 쓰는 은어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70	.67	.70
세대 갈등	심리적 갈등	3	짜증남	.78	.78	.80
	관계적 갈등	4	부모님과(자녀와) 거리감을 느낌	.83	.82	.81
자기 효능감	어려움극복	6	일이 영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81	.80	.81
	관계	6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68	.76	.75
삶의 질	가정의 화목	4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80	.73	.74
	경제적인 여유	4	경제적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74	.77	.77
	개인적인 성취	4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64	.77	.71
	자기조절	4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71	.70	.70

답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alpha = .67 \sim .81$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세대갈등 변인은 2개의 하위변인들, 즉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또는 자녀와 세대차 지각으로 인해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세대차 지각 변인과 동일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신뢰도는 $\alpha = .78 \sim .83$ 으로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 변인은 Bandura(1995)의 질문에 토대하여 번역 제작되었으며, 제시한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2개의 하위변인, 즉 어려움극복효능감, 관계효능감으로서, 답지는 1(전혀 잘할 수 없다)에서 5(매우 잘할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세 집단별 신뢰도는 $\alpha = .68 \sim .81$ 사이의 값을 보였다.

삶의 질 변인은 4개의 하위변인들, 즉 가정의 화목, 경제적인 여유, 개인적인 성취, 자기조절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들과 관련하여 평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질문하고, 행복한 정도를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alpha = .64 \sim .80$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실시 및 분석 방법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직접 학생용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의 철저한 감독 하에 수업시간에 실시함으로써 응답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배포되어 집에 하교하여 부모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부모들이 실시한 질문지를 학생들

이 수거하여 학교에 제출하였다.

수거된 모든 질문지에 대해 응답의 성실성이 검토되었다. 무응답 문항이 많은 등 불성실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을 확정하였다.

SPSS를 활용하여 배경정보에 대한 빈도분석,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위계적 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각각의 모형에 대해 LISREL분석과 효과분석을 하였다. 모든 분석은 세 집단 즉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 각각별로 진행되었다.

결 과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관계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간의 상호상관관계를 분석대상 집단별로 제시한 결과가 표 2~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2를 보면, 삶의 질과 세대차 지각($r = -.22$) 및 세대갈등($r = -.29$)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어려움극복효능감($r = .50$) 및 관계효능감($r = .53$)은 모두 .5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과 삶의 질의 부적 상관계수보다 낮은 값이었지만, 세대차 지각과 어려움극복효능감($r = -.09$), 관계효능감($r = -.16$)은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대차 지각

1) 본문에서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삶의 질로 표기된 변인들을, 표 2~표 4에서는 하위 측정변인과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세대차 지각: 전체, 세대갈등: 전체, 삶의 질: 전체로 표기하였음.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청소년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세대차 지각: 전체	1.00												
② 세대차 지각: 학업	.88***	1.00											
③ 세대차 지각: 생활	.86***	.66***	1.00										
④ 세대차 지각: 여가기호	.85***	.59***	.63***	1.00									
⑤ 세대갈등: 전체	.53***	.46***	.47***	.44***	1.00								
⑥ 세대갈등: 심리갈등	.51***	.44***	.47***	.42***	.89***	1.00							
⑦ 세대갈등: 관계갈등	.46***	.41***	.41***	.39***	.91***	.63***	1.00						
⑧ 어려움극복효능감	-.09**	-.06	-.07*	-.10***	-.13***	-.12***	-.12***	1.00					
⑨ 관계효능감	-.16***	-.12***	-.14***	-.17***	-.21***	-.13***	-.25***	.47***	1.00				
⑩ 삶의 질: 전체	-.22***	-.17***	-.20***	-.21***	-.29***	-.22***	-.29***	.50***	.53***	1.00			
⑪ 삶의 질: 가정의 화목	-.24***	-.20***	-.20***	-.21***	-.32***	-.21***	-.36***	.21***	.46***	.75***	1.00		
⑫ 삶의 질: 경제적 여유	-.20***	-.16***	-.19***	-.16***	-.20***	-.16***	-.19***	.31***	.37***	.81***	.58***	1.00	
⑬ 삶의 질: 개인적 성취	-.13***	-.08**	-.11***	-.14***	-.16***	-.15***	-.14***	.43***	.37***	.77***	.36***	.48***	1.00
⑭ 삶의 질: 자기조절	-.13***	-.10**	-.13***	-.13***	-.21***	-.17***	-.20***	.60***	.44***	.77***	.38***	.42***	.57***

* $p < .05$, ** $p < .01$, *** $p < .001$

과 세대갈등은 $r=.53$ 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대갈등과 어려움극복효능감($r=-.13$), 관계효능감($r=-.21$)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대차 지각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의 상관계수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크게 높은 계수는 아니었다.

표 3은 아버지 집단을 분석한 결과이다. 아버지 집단도 비록 구체적인 상관계수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반응 패턴에서는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형태를 보였다. 삶의 질은 세대차 지각($r=-.17$)과 낮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 세대갈등($r=-.23$)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어려움극복효능감($r=.54$) 및 관계효능감($r=.52$)과는 모두 $r=.50$ 이상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과 어려움극복효능감($r=-.10$) 및 관계효능감($r=-.19$)은 모두 낮은 부적상관이였다. 이보다는 약간 높은 부적 상관이 세대갈등과 어려움극복효능감($r=-.17$) 및 관계효능감($r=-.25$)에서 있었다. 그러므로 세대차 지각 및 세대갈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은 $r=.53$ 으로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차에 대한 지각과 갈등은 매우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청소년 및 아버지 집단과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였다. 삶의 질은 세대차 지각($r=-.18$)과 낮지만 부적 상관이 있었고, 세대갈등($r=-.25$)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

표 3.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아버지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세대차 지각: 전체	1.00												
② 세대차 지각: 학업	.88***	1.00											
③ 세대차 지각: 생활	.91***	.69***	1.00										
④ 세대차 지각: 여가기호	.85***	.61***	.69***	1.00									
⑤ 세대갈등: 전체	.53***	.42***	.53***	.45***	1.00								
⑥ 세대갈등: 심리갈등	.47***	.40***	.45***	.39***	.88***	1.00							
⑦ 세대갈등: 관계갈등	.50***	.38***	.51***	.43***	.91***	.61***	1.00						
⑧ 어려움극복효능감	-.10***	-.09**	-.11***	-.06*	-.17***	-.13***	-.18***	1.00					
⑨ 관계효능감	-.19***	-.14***	-.23***	-.13***	-.25***	-.17***	-.28***	.64***	1.00				
⑩ 삶의 질: 전체	-.17***	-.16***	-.15***	-.13***	-.23***	-.19***	-.23***	.54***	.52***	1.00			
⑪ 삶의 질: 가정의 화목	-.20***	-.14***	-.23***	-.14***	-.29***	-.20***	-.34***	.39***	.50***	.74***	1.00		
⑫ 삶의 질: 경제적 여유	-.08*	-.11***	-.03	-.07*	-.10**	-.11***	-.07*	.35***	.32***	.80***	.43***	1.00	
⑬ 삶의 질: 개인적 성취	-.09**	-.12***	-.06*	-.06	-.13***	-.12***	-.12***	.47***	.41***	.84***	.45***	.62***	1.00
⑭ 삶의 질: 자기조절	-.17***	-.15***	-.16***	-.15***	-.25***	-.20***	-.24***	.54***	.45***	.80***	.51***	.46***	.6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어머니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세대차 지각: 전체	1.00												
② 세대차 지각: 학업	.85***	1.00											
③ 세대차 지각: 생활	.89***	.63***	1.00										
④ 세대차 지각: 여가기호	.85***	.55***	.68***	1.00									
⑤ 세대갈등: 전체	.50***	.40***	.48***	.43***	1.00								
⑥ 세대갈등: 심리갈등	.44***	.39***	.41***	.35***	.88***	1.00							
⑦ 세대갈등: 관계갈등	.46***	.32***	.46***	.42***	.90***	.57***	1.00						
⑧ 어려움극복효능감	-.11***	-.08*	-.11***	-.12***	-.17***	-.12***	-.17***	1.00					
⑨ 관계효능감	-.22***	-.12***	-.23***	-.22***	-.22***	-.10**	-.29***	.50***	1.00				
⑩ 삶의 질: 전체	-.18***	-.14***	-.16***	-.18***	-.25***	-.20***	-.26***	.46***	.49***	1.00			
⑪ 삶의 질: 가정의 화목	-.23***	-.15***	-.23***	-.20***	-.29***	-.17***	-.34***	.32***	.48***	.78***	1.00		
⑫ 삶의 질: 경제적 여유	-.07*	-.09**	-.02	-.08*	-.17***	-.18***	-.14***	.25***	.27***	.79***	.47***	1.00	
⑬ 삶의 질: 개인적 성취	-.12***	-.10***	-.10**	-.12***	-.16***	-.15***	-.15***	.42***	.39***	.83***	.48***	.57***	1.00
⑭ 삶의 질: 자기조절	-.17***	-.10***	-.17***	-.18***	-.21***	-.15***	-.22***	.51***	.42***	.79***	.53***	.43***	.60***

* $p < .05$, ** $p < .01$, *** $p < .001$

나 삶의 질은 어려움극복효능감($r=.46$) 및 관계효능감($r=.49$)과 모두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세대차 지각과 어려움극복효능감($r=-.11$) 및 관계효능감($r=-.22$)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세대갈등과 어려움극복효능감($r=-.17$) 및 관계효능감($r=-.22$)도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아버지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대차 지각 및 세대갈등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은 $r=.50$ 으로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세대차에 대한 지각과 갈등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2~표 4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의 반응 패턴이 동일하였다. 세대차 지각은 세대갈등과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삶의 질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세대차 지각 및 세대갈등과는 부적 관계에 있고, 삶의 질과는 매우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각각의 하위변인별 상관관계에서도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집단별로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5~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다회귀분석은 위계적 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세대차 지각 변인만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세대갈등변인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였다.

표 5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세대차 지각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beta = -.19(p<.001)$ 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R^2 값이 .04로 낮기는 하였지만 F 값이 $p<.001$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 세대갈등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세대갈등은 $\beta = -.25$ 로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대차 지각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2단계에서의 R^2 변화량은 .05가 되어 총 R^2 값은 .08로서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대차 지각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나머지 3개 독립변인은 모두 유의하였으나, 세대갈등은 부적인 값을($\beta = -.15, p<.001$), 어려움극복효능감($\beta = .33, p<.001$)과 관계효능감($\beta = .36, p<.001$)은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R^2 변화량은 .34이므로 총 R^2 값은 .42였다. F 검증 결과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세대차 지각 변인만 투입하였을 때, $\beta = -.15(p<.001)$ 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R^2 값이 .02밖에 안 되었지만 유의하였다($F=22.72, p<.001$).

2단계에서 세대갈등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세대갈등은 유의하였으나($\beta = -.20, p<.001$), 세대차 지각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세대갈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R^2 변화량은 .03이고, 총 R^2 값은 .05로서 유의하였다($F = 30.77, p<.001$).

표 5.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청소년 집단

단계	투입 독립변인	B	β	<i>t</i>	<i>p</i>	R ²	Δ R ²	<i>F</i>	<i>p</i>
1	세대차 지각	-.17	-.19	-6.24***		.04	.04	38.99***	
2	세대차 지각	-.05	-.06	-1.76		.08	.05	49.20***	
	세대갈등	-.16	-.25	-7.01***					
3	세대차 지각	-.03	-.04	-1.27		.42	.34	289.49***	
	세대갈등	-.09	-.15	-5.12***					
	어려움극복효능감	.25	.33	12.22***					
	관계효능감	.31	.36	13.00***					

*** *p* < .001

표 6.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아버지 집단

단계	투입 독립변인	B	β	<i>t</i>	<i>p</i>	R ²	Δ R ²	<i>F</i>	<i>p</i>
1	세대차 지각	-.12	-.15	-4.77***		.02	.02	22.72***	
2	세대차 지각	-.04	-.04	-1.21		.05	.03	30.77***	
	세대갈등	-.14	-.20	-5.55***					
3	세대차 지각	-.02	-.02	-.76		.35	.30	232.29***	
	세대갈등	-.06	-.09	-2.91**					
	어려움극복효능감	.29	.36	10.91***					
	관계효능감	.21	.26	7.57***					

*** *p* < .001

표 7.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어머니 집단

단계	투입 독립변인	B	β	<i>t</i>	<i>p</i>	R ²	Δ R ²	<i>F</i>	<i>p</i>
1	세대차 지각	-.12	-.15	-4.80***		.02	.02	23.04***	
2	세대차 지각	-.03	-.04	-1.07		.06	.04	39.60***	
	세대갈등	-.15	-.22	-6.29***					
3	세대차 지각	.01	.01	.44		.32	.26	193.31***	
	세대갈등	-.09	-.13	-4.28***					
	어려움극복효능감	.23	.30	9.97***					
	관계효능감	.25	.31	10.06***					

*** *p* < .001

3단계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2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세대차 지각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나머지 3개 독립변인은 유의하였으나, 세대갈등은 부적인 β 값을 보이고 유의도 수준도 효능감보다 낮았다($\beta = -.09, p < .01$), 어려움극복효능감($\beta = .36, p < .001$)과 관계효능감($\beta = .26, p < .001$)은 모두 정적인 β 값을 보였으며, 유의도 수준도 높았다. 두 개의 효능감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R^2 변화량은 .30이고, 총 R^2 값은 .35로서 매우 유의하였다($p < .001$).

표 7은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세대차 지각 변인만 투입하였을 때, $\beta = -.15(p < .001)$ 값이 유의하였으며, R^2 도 .02로 유의하였다($F = 20.04, p < .001$).

2단계에서 세대갈등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청소년과 아버지 집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대차 지각은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5$), 세대갈등은 유의하였다($\beta = -.22, p < .001$). 세대갈등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R^2 변화량은 .04이고, 총 R^2 값은 .06으로서 유의했다($F = 39.60, p < .001$).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2단계처럼 세대차 지각이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세대갈등은 부적($\beta = -.13, p < .001$)이었으나 어려움극복효능감($\beta = .30, p < .001$)과 관계효능감($\beta = .31, p < .001$)은 정적인 표준화회귀계수를 보였다. 두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R^2 변화량은 .26이고, 총 R^2 값은 .32($F = 193.31, p < .001$)로서 매우 유의하였다.

표 5~표 7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을 예언함에 있어,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의 설명변량이 매우 컸다. 세대차에 대한 지각 자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세대갈등은 의미있는 영향이 있었으

나,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관계효능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아버지 및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증: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LISREL 분석한 결과가 그림 2~그림 4에, 이를 기초로 효과 분석한 결과가 표 8~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가 그림 2이다. 모형적합도는 $GFI = .917$ 로 .90 이상이었으나, $AGFI = .860$, $NFI = .893$ 로서 .90에 약간 미달하였다. $RMR = .058$ 로 .05수준에 거의 가까웠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적합도는 아니지만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차 지각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 = .64(p < .001)$ 로서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 = -.12(p < .01)$ 로서,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P = -.20(p < .001)$ 이고, 자기효능감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 = -.14(p < .001)$ 로서 부적인 값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 = .84(p < .001)$ 로서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표 8은 그림 2의 결과를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삶의 질에 대한 세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먼저 세대차 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가 -.25였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84와 간접효과 .02가 합해져서 전체효과가 .86으로 매우 높은 효과계수를 보였다. 그리고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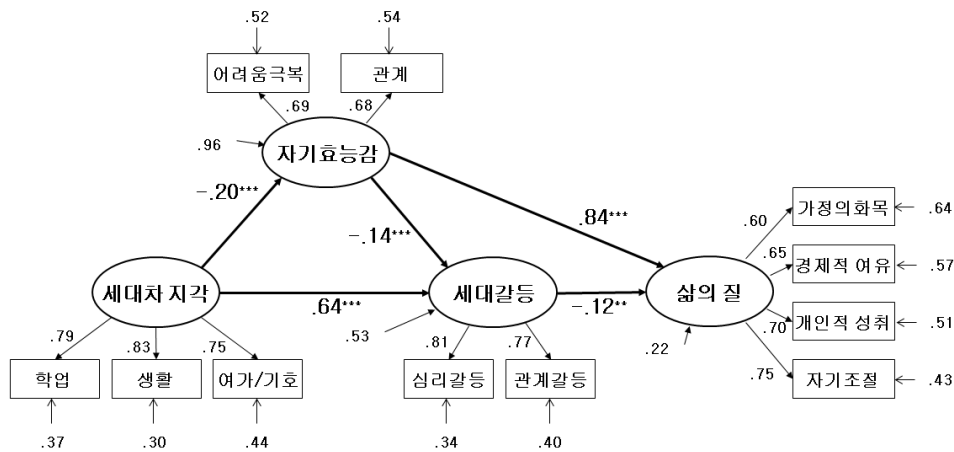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LISREL분석: 청소년 집단

표 8.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청소년 집단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세대차 지각 → 자기효능감	$-.20 (-4.98)^{***}$	-	$-.20 (-4.98)^{***}$
→ 세대갈등	$.64 (16.93)^{***}$	$.03 (3.10)^{**}$	$.67 (17.82)^{***}$
→ 삶의 질	-	$-.25 (-6.74)^{***}$	$-.25 (-6.74)^{***}$
자기효능감 → 세대갈등	$-.14 (-3.81)^{***}$	-	$-.14 (-3.81)^{***}$
→ 삶의 질	$.84 (12.95)^{***}$	$.02 (2.94)^{**}$	$.86 (13.22)^{***}$
세대갈등 → 삶의 질	$-.12 (-3.24)^{**}$	-	$-.12 (-3.24)^{**}$

()는 t 값, ** $p < .01$, *** $p < .001$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가 $-.12$ 로 나타났다. 세 변인들의 전체효과 값을 비교해 볼 때,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보다 7배가 넘으며, 세대차 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세대차 지각을 적게 할수록, 세대갈등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데, 특히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갈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세대

차 지각이 $.64$ 의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14$ 의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세대차 지각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세대갈등이 커지는데, 세대갈등은 세대차 지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 3이다. 모형적합도는 $GFI=.932$, $NFI=.927$ 로서 $.90$ 이 넘었으나, $AGFI=.885$ 로 $.90$ 에 약간 미달하였다. $RMR=.051$ 으로서 거의 $.05$ 수준이었으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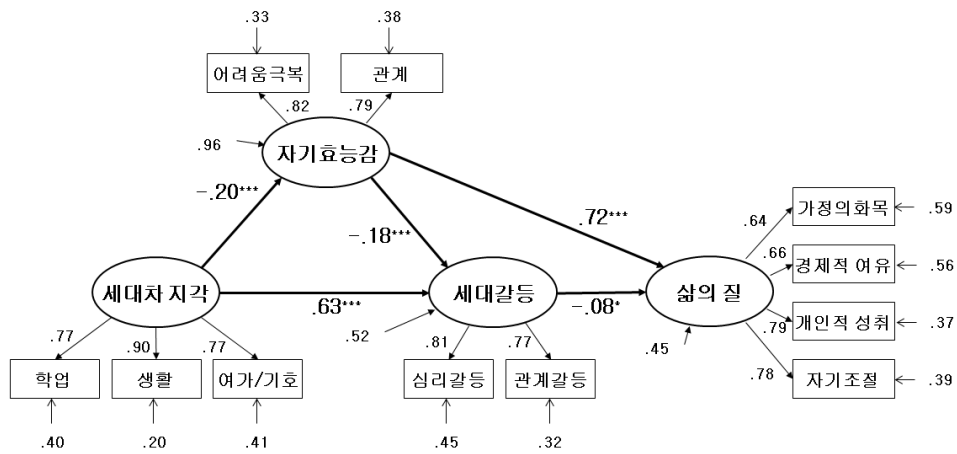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LISREL분석: 아버지 집단

표 9.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아버지 집단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세대차 지각 → 자기효능감	-.20 (-5.33)***	-	-.20 (-5.33)***
→ 세대갈등	.63 (15.64)***	.04 (3.91)***	.67 (16.28)***
→ 삶의 질	-	-.19 (-5.93)***	-.19 (-5.93)***
자기효능감 → 세대갈등	-.18 (-5.25)***	-	-.18 (-5.25)***
→ 삶의 질	.72 (14.84)***	.01 (2.25)*	.73 (15.37)***
세대갈등 → 삶의 질	-.08 (-2.32)*	-	-.08 (-2.32)*

()는 t값, * $p < .05$, *** $p < .001$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세대차 지각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 = .63 (p < .001)$ 이고,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 = -.08 (p < .05)$ 이었다. 또한 세대차 지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P = -.20 (p < .001)$ 이고, 자기효능감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 = -.18 (p < .001)$ 로, 모두 부적이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 = .72 (p < .001)$ 로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림 3의 결과를 효과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차 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가 $-.19$ 였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72)와 간접효과(.01)가 합해져서 매우 높은 정적인 전체효과 계수(.73)를 나타내었다.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8$ 이었다.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보다 9배가 넘으며, 세대차 지각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보다 약 4배에 이르고 있

었다. 따라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세대차 지각을 적게 할수록, 세대갈등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매우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진되는 효과는 매우 컸다.

세대갈등에 대한 직접효과는, 세대차 지각이 .63, 자기효능감이 -.18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차 지각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록 세대갈등이 커지는데, 자기효능감보다는 세대차 지각의 세대갈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그림 4는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LISREL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적합도는 GFI=.933, NFI=.913로서 .90을 넘었다. AGFI=.887로 .90에 약간 미달하였으나, RMR=.049으로서 .50보다 낮았다. 그러므로 그림 2, 3, 4 모두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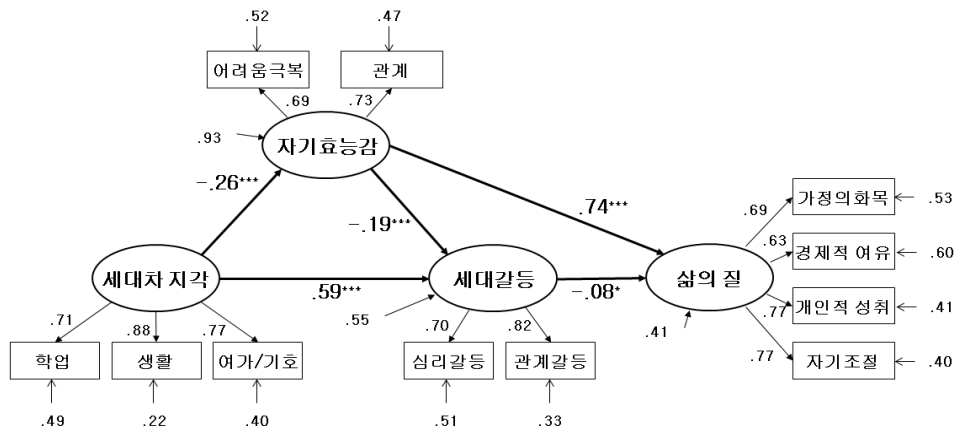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의 LISREL분석: 어머니 집단

표 10.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어머니 집단²⁾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세대차 지각 → 자기효능감	-.26 (-6.48)***	-	-.26 (-6.48)***
→ 세대갈등	.59 (13.52)***	.05 (4.03)***	.64 (14.55)***
→ 삶의 질	-	-.24 (-7.19)***	-.24 (-7.19)***
자기효능감 → 세대갈등	-.19 (-4.86)***	-	-.19 (-4.86)***
→ 삶의 질	.74 (13.07)***	.02 (2.05)*	.75 (13.69)***
세대갈등 → 삶의 질	-.08 (-2.01)*	-	-.08 (-2.01)*

()는 t값, * p<.05, *** p<.001

2) 표 10에서 '자기효능감->삶의 질'의 output 상에서의 직접효과는 .739, 간접효과는 .015, 전체효과는 .753임. output에서는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록되어 전체효과가 .754가 아니고 .753이 됨. 표 10은 output에 나온 계수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함으로써, 전체효과가 .76이 아니고 .75로 되었음.

어머니 집단의 모형이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적합도 수준이 높았다.

세대차 지각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59(p<.001)$ 였고,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08(p<.05)$ 이었다. 한편 세대차 지각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P=-.26(p<.001)$ 이고, 자기효능감의 세대갈등에 대한 영향은 $P=-.19(p<.001)$ 였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P=.74(p<.001)$ 로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표 10은 그림 4를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세대차 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4$ 였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74)와 간접효과(.02)가 작용하여 매우 높은 전체효과(.75)를 나타내었다.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는 $-.08$ 이었다. 각 변인들의 전체효과를 비교해 볼 때,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세대갈등의 효과보다 9배가 넘고, 세대차 지각의 효과보다 3배가 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집단도, 높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증진시켰으며, 세대차 지각을 적게 할수록, 세대갈등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

세대갈등에 대해, 세대차 지각은 .59, 자기효능감은 $-.19$ 의 직접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세대차 지각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세대갈등이 커지는데,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보다 세대차 지각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림 2~그림 4, 표 8~표 10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경로계수나 효과계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세 집단 모두 공통의 반응패턴을 보였다.

세대차에 대한 지각이나 세대차로 인한 갈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

요약

이 연구는 세대 차이와 갈등이 삶의 질을 낮추는가?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차에 대한 지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세대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은 중다회귀분석, LISREL분석, 효과분석에 의해 검증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Delta R^2=.02\sim.04$)과 세대갈등($\Delta R^2=.03\sim.05$)에 비해 자기효능감($\Delta R^2=.26\sim.34$)이 추가되었을 때, 삶의 질에 대한 설명변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LISREL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은 세대갈등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P=.59\sim.64$), 세대갈등은 삶의 질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P=-.08\sim-.12$) 나타내었다. 세대차 지각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P=-.20\sim-.26$), 자기효능감은 세대갈등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P=-.14\sim-.19$),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정적인 경로계수를($P=.72\sim.84$)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갈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의 정도는 세대갈등보다 자기효능감이 현저하게 높았다.

효과분석 결과, 세대차 지각(-.19~-.25)이나 세대갈등(-.08~-.12)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부적인 효과계수를 보이는데 비해, 자기효능감(.73~.86)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매우 높은 정적인 효과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차 지각이나 세대갈등이 클수록 삶의 질이 감소되지만,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효과크기를 비교해 볼 때, 세대차 지각이나 세대갈등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대해 약 3~9배의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대차 지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은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기효능감 변인의 중요성은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는 여러 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후속연구에서 고려되고 보완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들이 누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차이에 대한 지각과 이에 따른 갈등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세대차에 대한 지각과 세대갈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이 아닌 다양한 차이 지각과 갈등의

상황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가정 내에서도 부부간 갈등과 배우자의 삶의 질,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자녀의 삶의 질,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질,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간의 갈등 또는 직장 동료 간의 갈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또는 다양한 맥락 하에서의 차이에 대한 지각과 그로 인한 갈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검증에 대해 나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적된 결과들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 지각과 세대갈등 및 삶의 질의 맥락 속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잠재구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차이와 갈등의 대상 및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적절한 하위변인들이 신중하게 고려된 뒤에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Bandura(1997, 2006b)도 자기효능감이 영역특수적인 개념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윤운성(1999)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력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결과는 명료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자기효능감은 영역별 과제에 적합한 영역특수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셋째, 이 연구의 LISREL분석에서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의 모형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AGFI가 .9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더 모형적합도가 높았으면 이상적이었겠으나, 그래도 현재의

모형적합도 수준에서 분석된 경로계수들을 토대로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적합도가 높은 모형들을 꾸준히 개발하여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의: 삶의 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

이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이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변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중요한 중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8, 2009a, 2009b; 박영신 외, 1999, 2000, 2002; 한혜영, 현명호, 2006; Chang, Park & Kim, 2008; Lee, Kim & Park, 2006; Park, 2008; Park & Kim, 2004)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통제 변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김성천, 탁진국, 2010; 임수진 외, 2008; Tinker & Moore, 2003)과도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희, 김문식과 박수경(2008)이 직장에서의 조직몰입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직장-가정 갈등보다 다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효능감 구인이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순현(2004)은 가족 내 세대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해결책으로, 세대 간 관계적 기능의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검증된 관계효능감은 바로 이러한 관계적 기능 강화의 실제적인 심리적 변인의 한 구체적인 예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다양한 분석 결과들에 토대하여,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차이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 상황에서, 효능적 신념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의미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맺음말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 차원을 다루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나, 그들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수용과정에서나, 드러나는 많은 차이점들이 심각한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집단의 삶의 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집단효능감의 증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도, 하위 조직 구성원간의 차이를 갈등으로부터 다양성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집단효능감의 선택을 통해 창의로운 질적 발전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차이는 차이 대상의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자기효능감은 개인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므로, 그러한 통제력을 발휘(Kim, 1999)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요한 포인트가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은, 자기와 상대방의 인식 차이를 심각한 갈등으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차이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역발상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차이의 현상에 압도되어 무기력한 수용으로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효능적 신념과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차이를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계기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인가, 어느 경로를 비중있게 선택할 것인가는, 매순간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 삶의 과정 속에는 예컨대 선천성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죽음과 같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요소도 존재하지만, 자기효능감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인간은 차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수동적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통제 기능에 대한 효능적 신념과 기술에 의해 능동적 존재로 스스로 선택하는 마음현상 가운데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어려움을 반드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을 통해 감사의 사건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는 헬렌 켈러와 같이 강한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발휘하며 효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박영신, 김의철, 2001) 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위해서(Zimmerman & Cleary, 2006)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Bandura(1997)가 제안한 효능적 신념과 기술로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구인은, 차이와 갈등 그리고 이어지는 낮은 삶의 질이라는 악몽의 연속과 같은 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출구 찾기를 가능케 하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다.

참고문헌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김성천, 탁진국 (2010). 역할과부하 및 일-가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시간 통제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35-49.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 A. & Horiuchi, S.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 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특집호, 197-219.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

- 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15.
-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21-132.
- 박아청 (2002). 정체감 교섭과정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이해. 교육심리연구, 16(2), 5-21.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5.
- 박영신, 김의철 (2001). 서장: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a).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Tsuda, 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S.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28.
- 박혜련, 박민선, 이빠라, 정선아 (2009).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태도 차이에 따른 변인간 관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319-343.
- 양돈규, 성옥련 (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

- 향. 199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5-393.
-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 용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33-451.
-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68.
- 이선희, 김문식, 박수경 (2008). 가족친화적 경영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3), 383-410.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69-183.
- 장재운 (2004). 직무 특성과 직장-가정 간 갈등이 조직에 대한 애착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1), 107-127.
- 장재운,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23-42.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허창구, 신강현, 양수현 (2010).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탈진 및 가정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차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03-128.
- Bandura, A. (1991). Self-efficacy mechanism in physiological activation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In J. Madden, IV (Ed.). *Neurobiology of learning, emotion and affect*, (pp.229-270). New York: Raven.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2006a). Adolescent development from an agentic perspective.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1-4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andura, A. (2006b). Guide for crea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307-337.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Chang, W. G., Park, Y. S., & Kim, U. (2008).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308. July 20-25, International

-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b).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 Lee, S. M., Kim, U., & Park, Y. S. (2006).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relational efficacy, life-satisfaction and trust: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p. 20. June 23-25, California, USA.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Tinker, S. P., & Moore, K. A. (2003). Teachers' work hours, work-family conflict and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663-678.
- Wiedenfeld, S. A., O'Leary, A., Bandura, A., Brown, S., Levine, S., & Raska, K. (1990). Impact of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stressors on components of the immune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82-1094.
- Zimmerman, B. J., & Cleary, T. J. (2006). Adolescents' development of personal agency: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ory skill.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45-69.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원고접수일자 : 2010. 7. 10.
게재확정일자 : 2010. 8. 29.

Do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duce quality of life?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Uichol Kim

Young-Kyoon Park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s: Do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duce quality of life and what role does self-efficacy pla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 total of 3,114 respondents, consisting of 1,038 adolescents and their father ($n=1,038$) and mother ($n=1,038$)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and self-efficacy (Bandura, 1995). Hierarchical analysis indicate that inclusion of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for quality of life, far and above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LISREL analysis indicate that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had a direct and positive influence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ich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which in turn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a direct and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Those respondents with less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with higher self-efficacy had higher quality of life. However, self-efficacy had a more powerful effect on quality of life tha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effect size of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The effect size of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was 3 to 9 times greater than that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A similar pattern of results were obtained for adolescent, father and mothers samples. In summary,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increases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ich in turn reduces quality of life. However, self-efficacy reduces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significantly increases quality of life.

Key words :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intergenerational conflict*